

칼럼

임성욱

시민/사회복지학박사



수많은 도덕률과 종교가 있어도 오히려 부족한 이유

남의 허물은 좁쌀보다 작은 것도 태산처럼 부풀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도 자신의 큰 허물은 아예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부족할 정도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많은 도덕률과 종교가 있어도 오히려 부족한 정도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사찰 등 성전이 거둬들여도 이 세상의 혼탁함은 결코 말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탁해져만 가는 것 같다. 이는 곧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그 어떤 방면에서도 자신을, 자기 집단을 낮추려 하는 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지 않을까. 때문에 날마다 아귀다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점잖게 문화와 예술을 논한다는 문화계와 예술계에서마저 어디 그뿐인가.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종교계는 또 어떤가.

가끔씩 스님들과 신도들이 뒤엉켜 소림사의 결투를 보여주지 않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바세계의 욕심이 그대로 사찰에도 존재하기 때문일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로 상속하기 위해서 또는 신·구세력의 갈등 등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이런 하극상 행태들이 빚어질 때마다 절망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다른 곳도 아닌 종교계에서까지. 그들의 추한 모습들은 보통 인간들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해 보인다. 신을 빙자하면서 가장 하극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자들에게는 번질번질한 설교를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목회자 자신들마저도 자신들이 한 설교의 10%만 목회자들이 지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 했겠는가. 물론 목회자들도 인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질 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명색이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라. 그런 다음 범인들처럼 살라. 그러면 누가 뭐라하겠는가. 이런 부정적 현상들이 왜 발생할까. 겸양지덕이 사라져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지 않은가. 하지만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겸손이 춤출 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재는 바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32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7%를 차지합니다. 이중 상당수가 주방의 조리 중 불꽃, 식용유 과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

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조리 중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오히려 물을 부을 경우 기름이 튀어 더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큼니다. 이러한 주방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자동화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입니다.

자동화산소화기는 후드 내부 덕트 또는 열원 바로 위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로, 일정 온도(약 93~120℃)에 도달하면 유리기울이 파손되면서 소화약제가 분사되어 불꽃을 빠르게 진압합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원 상부 중심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후드 내부 1.2m 이내 위치하며 장애물 없이 불꽃에 직접 반응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K급 소화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기름 위에 비누막과 같은 유막을 형성

해 재발화를 방지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음식점·급식소 등 조리 시설이 있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식당과 조리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동화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홍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수안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음력 4월 26일)



48년생 양묘의 숙제 미리미리 해결하자. 60년생 승승장구 순풍에 돛이 달려진다. 72년생 쓴소리 미운 소리 한 귀로 흘려내자. 84년생 거칠게 달려드는 시련과 맞서보자. 96년생 현명한 평화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49년생 포장을 벗겨내야 속내를 알 수 있다. 61년생 이는 만큼 보인다. 열심히 공부하자. 73년생 급작같은 기회 날개를 펼쳐보자. 85년생 막중한 책임 계급장이 달려진다. 97년생 놓지 않던 희망이 반전을 불러낸다.



50년생 적당한 양보로 흥정을 마쳐보자. 62년생 산 넘어 산이여도 포기 는 금물이다. 74년생 초심 간 실패 부자가 되어간다. 86년생 천국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보자. 98년생 아프고 쓰린 실패 세상을 배워보자.



51년생 그리웠던 시절 추억을 더듬어보자. 63년생 경사 중의 경사 당일 성실 출을 추가. 75년생 사랑하고 싶은 만남을 가져보자. 87년생 자레짐 작표기 꼬리가 달려진다. 99년생 역척스럽다 편진 당연히 받아보자.



52년생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져보자. 64년생 배움이 있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자. 76년생 폐가 될까 싶어 조심을 더해보자. 88년생 푸대접을 받아도 소신을 지켜내자. 100년생 똑똑하게 잘한다. 칭찬을 들어보자.



53년생 하늘의 별을 보고 시를 만들어보자. 65년생 치열한 경쟁 전투태 세 갖춰보자. 77년생 운명이 잡지해준 짝을 만나보자. 89년생 제격인 감투 비단옷이 걸려진다. 101년생 훌쩍 자란 숨겨진 박수는 덤으로 온다.



54년생 금방 후회되는 실언을 감아내자. 66년생 예쁜 유혹에는 거절이 숨어있다. 78년생 사서 했던 고생이 보람을 더해준다. 90년생 정직한 가려로 신뢰를 얻어보자. 102년생 철부지 짝사랑 대답조차 못 듣는다.



55년생 맛있는 담으로 숙제를 마쳐보자. 67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실패가 남겨진다. 79년생 자극한 겸손 하늘 높은 줄 알아보자. 91년생 맛있는 음식에 기분도 최고로 간다. 103년생 언제 내게 미주는 부름에 나서보자.



56년생 흥겨운 분위기 주인공이 되어보자. 68년생 기억에서 사라진 초심을 찾아보자. 80년생 고마운 이웃에 도움을 받아보자. 92년생 더디고 느리게 목표를 향해 가자. 104년생 교과서 배운 더하기나 보태지 마라.



57년생 아이고 소리 나는 부탁이 들려온다. 69년생 좋다 하는 표현 진심을 더해보자. 81년생 격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가져오자. 93년생 든든한 콧대 버린 값을 불러보자. 105년생 행복하지 못했던 이별 인사 해보자.



58년생 지켜오던 원칙에 변화를 가져보자. 70년생 잡안이 들끓는 경사를 맞이한다. 82년생 낮은 조합에도 의리로 뭉쳐보자. 94년생 용감한 선택이 만세를 불러낸다. 106년생 강동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아보자.



47년생 미련의 짚개기 혼적조차 지워내자. 59년생 기대만 두려움 반출 발전에 서보자. 71년생 개우침을 주는 충고를 들어보자. 83년생 낙제점 성적표 방심이 원인이다. 95년생 여럿이 함께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

기고

완도군 인성교육을 확대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최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를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져 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인간 소외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자살률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간의 고유 가치를 지키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 등 교육주체 간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들은 인제 양성이라는 명목 하에 조기 졸업과 명문대 진학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성적이 교육”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적 위주의 교육방침도 중요하합니다. 하지만 성적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토대 위에서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제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임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젠 우리군은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게 인성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선호 대학에 진학하고, 선호하는 직장을 얻으며,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우리군 교육정책이 바뀌어 가길 바랍니다.

첫째, 전라남도에서는 완도군교육청 및 사회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성교육이 학교와 가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둘째, 완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인성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절을 잘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내면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학생교육에서 필수 2과목은 체육과 인성(도덕)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뉴질랜드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서둘러 관련 조례발의와 함께 완도군 인성교육이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커가는 학생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 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 (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50

경부고속도로 50주년